



##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 『학력사항』

- 서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독일 키일대학교 연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헌법학)

### 『경력사항』

- 월간 법률지 「考試界」 발행인
-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회장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 본부장
-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 正義黨 의장
- 태평양 아시아 협회 회장
- 제26대 서울특별시 시장
- 한미우호협회 회장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저서』

- 7일간의 서울시장
- 正義로 가는 길



故 김 상 철

(1947.3.15 - 2012.12.13)

## 獻辭

때로 우리는 당연시되는 일상적인 것들을 직관함으로써 「길」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길은 항상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소한 體驗을 敢히 털어 놓고자 함은 이러한 생각에서입니다. 나의 先輩에게는 어떤 새롭고 참신한 刺戟을, 나의 同輩에게는 既往에 經驗한 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그리고 나의 後輩에게는 試行錯誤를 되도록 줄이는 作業을 이들이 해낸다면 나의 글이 작은 寄與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考試라는 試驗過程을 빨리 벗어나, 既往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對話들을 動化하는 隊列에 곧 같이 參與하기를 기원합니다.

## 나의 경우

### 1. 大學三學年

나의 受驗生活은 大學三學年때부터 始作되었습니다. 그간의 나의 生活은 社會科學의 基礎分野(그중 特히 文化史·社會構造史·思想史·哲學史等 歷史分野)를 最小限이나마 整理함으로써 意識以前의 感覺段階에서 認識段階로 나의 眼目を 끌어올려 그 位置를 定立하는 일과 그로 인한 社會參與에 대한 意志로 채찍질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섬섬하게도 게으름과 奔放의 유혹으로 그 成果가 보잘것 없는 상태에 머물렀고, 考試보겠다는 決定과 함께 그 作業은 考試以後로 미루어졌습니다.

그 三學年 一年間 考試공부라는 새로운 生活에 대한 抵抗으로 해서 많은 飲酒와 放恣함이 있었고, 그래서 考試工夫에 대한 沒頭라는 所期의 決心은 부끄러운 結果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三學年末의 제10회 사법시험을 치르게 될 즈음, 民法·刑法 各 3·4讀·其他 諸法은 讀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次 시험을 마치고 ① 民法·刑法 以外の 法에 熱心을 기울여야 겠고 ② 民法·刑訴·刑法 세 科目은 教科書로 不充分하니 노트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發想이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姿勢가 다음 시험의 한 敗因이 되었다는 點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 大學四學年

應試後의 解弛感·學期初의 奔放함·가다듬은 姿勢가 外的 與件에 의해 깨어지는 等은 迂餘曲折을 겪은 끝에 5月中旬 城北洞 골짜기에 下宿을 定함으로써 臨戰態勢를 가다듬었습니다. 城北洞은 山勢가 좋고 學校(서울法大)가 가까웠을뿐 아니라, 大部分 法大 同期生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해서 自足하여 공부 熱心히 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몇 좋아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 情誼와 對話·閑談과 막걸리가 橫行하고 奇拔한 사건들이 簇出하여, 이를테면 審美的 生活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공부는 「꾸준히」 進行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諸法의 徹底한 이해를 목표로 삼고 한편 民訴 刑訴 刑法의 완벽한 써브노트를 작성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따라 11월에 가서야 速讀과 暗記를 始作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가끔 斷切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200여매에 달하는 親族相續法, report·商事模擬裁判·改憲反對데모와 以後 10餘日間 어떤 여름修練大會·學點에 神經을 써야 할 처지였기에 비롯된 考試와 與關한 期末시험공부·年末의 韓銀入行과 그 波長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 때 交驩된 여러 情誼는 간혹 지나치기도 아니 하였으나, 대체로 보아 必須的 活力素가 이니었나 하는 點에서 別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大學卒業式을 前後한 제11회 司法試驗, 特히 시험에 臨迫하여서 發生한 여러 가지 事件들로 速讀·暗記를 未盡한 채로 시험을 치루고 난 후에도 合格에 대한 낭만적 自信을 잃고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結果는 民法·刑法 모두 40點代였습니다.

이 結果를 앞에 놓고, 나는 여러 가지로 混亂을 느꼈습니다. 暗記에 不足했던 나머지 科目이 모두 요행히 60點을 上廻하였다는 點 自信이 있었던 刑法에 完敗하였다는 두 가지 사실은 서로 矛盾되는 것이었습니다. 民法實力不足의 切感은 當然한 것이었고 . . . . . 不合格의 結果를 앞에 놓고, 民法實力不足만을 分析하여 낸 나의 放心과 得點의 跛行性은 사실 새로운 不合格을 다시 要求하고 있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닙니다.

### 3. 졸업後 5個月

最初의 나의 計劃은 졸업과 동시에 合格하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이 希望은 霧散되어 버렸습니다. 周圍에 대한 未安하므로 해서 마음의 아픔은 상당하였고, 이러한 아픔은 工夫에 대한 刺戟으로 發展하기 보다는 工夫에 대한 無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제12회 시험공고가 난 지도 한 열흘後, 제11회, 시험 以後 近三個月의 공백을 남긴 채, 다시 城北洞으로 찾아 든 때는 이미 시험 2個月前이었습니다. 一次시험은 3·4日間의 허둥댐으로 마칠 수 있었으나, 겨우 2·4回讀으로 二次시험에 응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全力投球한다 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12회 시험의 合格線은 61·76으로 기억되는데, 發表결과는 60點을 上廻하였으나, 民法이 계속 40點線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 4. 졸업후 12個月

사실, 最後의 2個月間的 死鬪를 빌미로 마음속으로는 나의 合格을 自信하던 제12회 시험이었음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0年 9月, 不合格의 苦痛속에 呻吟하면서도 人生에 대한 霸氣와 信賴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周圍의 나의 사랑하고 尊敬하는 親舊들과의 상호격려의 德이었습니 다.

다음 시험은 一年 후에나 있을 것이라는 說이 파다하였습니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諸法에 대한 必要的理解는 거의 끝나 있고 오로지 暗記만이 問題인데, 一年間 어떻게 暗記나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여 좀 外道를 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던 次 시험에 合格한 李某兄이 나의 그전 姿勢에 경고를 주고, 당장 내일 시험이 있다해도 答案에 어느 정도 써 넣을 수 있을 만큼 해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不合格이 사실 사법시험에 대한 不誠實에 基因하였던 것이고 보면, 兄의 이야기에 새로운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月末, 城北洞生活에 타성이 배어있음을 切感하기 시작하던 次, 在學時 그 學業에 대한 誠實性에 감탄해 마지 않던 成某兄의 同學提議를 받고, 電擊的으로 세검정으로 下宿을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近 100日 本質의인 蹉跎없이 부지런히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우선 民法를 완벽히 정복해버리는 意氣를 實踐하였고, 가능한 限 써브노트를 멀리하고 基本書를 速讀暗記하는 일에 全力하였습니다. 시험 한 달 前, 世界 最大의 공부를 하겠노라 주위에 宣言하였던 것은 사실 일등의 만용의 結果였지만 슈바이처는 그 지루한 醫學工夫를 晚學으로 마치고 나서, 코트길을 올린채 大學街를 미친듯이 헤매며 哄笑를 터트렸던데, 2月 18日 二次試驗을 마치고 나는 겨우 온몸에 찾아드는 피로속에 自足の 微笑를 지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結果는 合格이었습니다. 成績은 期待하는 만큼은 아니었는데, 다만 民法·刑法에서 어느정도 설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自慰할 수 있었습니다.

#### 考試공부一般論

回想하다 보니 浪漫的으로 되어버려 나의 特偶한 經驗을 장황한 感이 들도록 늘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諸兄들에게 진실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나의 受驗其間에 상당한

不誠實도 없지 않았으나, 오히려 無用한 試行錯誤를 反復하였던 것이 더욱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諸兄들이 예전에 이미 생각해 본 이야기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쯤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만 나의 主觀的 經驗에서 이루어진 偏見일 가능성도 같이 인정해야 하겠지마는,

첫째, 사법시험 2次는 이른바 시험공부이지 法學 공부 그 自體는 아니라는 點입니다. 당초에 내가 민소·형소·형법의 각 씨브노트를 하고 金哲洙教授의 憲法論文에 耽溺하고 하였을 때, 그것은 사실 시험공부하는 者의 姿勢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理解가 先行되어야 하고, 學文間情勢에서 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細部の이거나 野心的인 論文에 熱中하기에는 사법시험이 要求하는 範圍가 지나치게 넓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法律知識의 均衡에도 沮害되는 것입니다. 論文의 參考는 항상 必要한 最小範圍에 局限하려는 自制가 必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수험공부는 확실히 暗記를 要求하며, 따라서 試驗에 臨迫하여 速讀해 낼 수 있는 能力을·滿船의 準備를 갖추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 일입니다. 技術的인 面을 생각한다면, 數年間の 考試공부는 사실 이 速讀暗記를 爲해 存在한다 하여도 過言이 아닙니다. 이런 點에서 基本書單券主義는 확실히 捷徑의 方法입니다. 시험 바로 前날인 데도 그 尙大한 各種 씨브노트와 教科書を 併讀하고 「行政法例解」도 民法問題集도 一督하여야 할 形便이었던 때는 확실히 시험技術上 瑕疵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는 대로 씨브노트는 最小限으로 줄이고, 論點만을 教科書에 「살짝」 써 넣는 方法을 擇하기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셋째, 시험에 臨迫한 一달間·한달間·열흘間·그 하루 前은 바로 黃金期 그것입니다. 內的 혹은 外的의 條件上 평소의 공부에서 떨어져 있던 경우라도, 마지막 一달間 集中的으로 決死的으로 壯烈하게 臨戰態勢에 돌입한다면, 諸概念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되어 있는 限 合格은 상당히 保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시험에 臨迫하여 수면시간을 最大限으로 줄이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合格한 이 중의 相當數가 最後 10여일을 每日 두세시간의 수면으로 버티 내었음을 實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30分씩 서너번 자는 것도 좋은 方法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自己나 社會에 대한 放心도 하지 않고 血氣도 旺盛한 靑은이가 지루한 시험공부에 때로 厭症을 내고 때로 게을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나는 雜念이 많아 큰일이다」는 珍斷으로 내리는 이는 不合格의 우려

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可及의이면 예컨대, 週末은 강그리 쉬어버린다는 週期的인 Stress解消가 좋을 것입니다.

### 各科目階劃에 對한 試案

基本書單券主義라 하여도 各科目의 特性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試案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憲法 : 憲法教科書의 二·三回讀이 끝나면, 朴一慶教授問題集으로 곧장 매어 달리는 것이 必要하고 充分합니다. 文鴻柱教授것은 問題는 많으나 尠漫한 感이 있고 整理의 要領도 不足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朴教授問題集에 基本權全般에 대한 體系的 整理가 缺如되어 있으니 補充해야 할 것입니다. 古典的 憲法理論에 滿足치 않는 이들은 대체로 金哲洙教授의 憲法學을 參考하는 것이 이 理解에 도움이 될 것이나 答案에 現出할 때는 小數說을 大河가 흐르듯 펼쳐 놓는 것은 得點에 支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民法 : 金曾漢教授教科書(整理의 利點을 強調한다면 郭潤直教授教科書)를 理解速讀하는 것으로 充分하고, 論文은 거의 參考치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日常 民法과 商法 시험이 같은 날 시행되는데, 兩科目 모두 그 範圍가 尠大한 만큼, 시험 前날의 一讀을 爲하여 可及的 單券으로 지탱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教科書에서 整理되지 않는 問題(예컨대, 「民法上 動機를 論함 등」 몇 가지를 爲하여 單券으로 된 民法問題集(예컨대, 進明文化社刊)을 參考하면 論文에 의하는 煩雜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두 번 不合格의 形式的 原因은 이 民法 때문이었다 해도 過言이 아닌데, 나중에 생각하여 보니, 民法教科書에 대한 充分한 理解와 시험 前날의 一讀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惡質的인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느껴집니다.

(3) 형법 : 刑法을 어떻게 解決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큰 難題입니다. 우선 各論은 劉基天教授것을 擇하기에 別 어려움이 없으나, 各論上 定型的 問題(예컨대, 文書偽造罪·誣告罪·親族相盜例)는 써브노트 정리가 必要합니다. 結論은, 나의 경우 劉教授教科書を 基本書 黃山德教授教科書 및 白南憶氏 冊을 參考書로 하다가 四學年에 들어와서는 수 없이 近 40餘問題에 대한 써브노트를 만들고 劉教授冊을 併讀하곤 하였는데 썩 좋은 方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시험을 본다고 하면, 刑法上 犯罪論 및 行爲論의 시간적 展開에 따라, 白南憶氏冊을 數回讀 理解後·黃山德 劉基天教授冊을 順次로 理解한 後 그 要點을 파악하고, 다시 白南憶氏冊으로 돌아가 黃·劉兩教授의 見

解를 添加하여 가면서 各 論點을 整理하는 것이 判例가 一應 客觀主義에 立脚하고 있다는 點에서 더욱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作業이 끝나면, 教科書에 評論되지 않는 10個未滿의 諸論點을 論文으로 정리하는 一方, 定型的問題에 대한 項目別·論點別 노트를 作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험에 臨迫하여서는 白南憶氏冊과 썬브노트로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試案은 어디까지나 初學者에게나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상법 : 商法例解라는 좋은 問題集이 있으니 굳이 教科書에서 始作할 必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 「類題」로 나와있는 問題를 소홀히 보아 넘기지 말고 그 論點을 생각해 두곤 하면, 모든 問題에 대한 論點整理가 가능할 것입니다. 어음·手票法部分은 朴元善教授問題集이 無難할 것입니다. 商法問題가 case化 하는 傾向에 있음을 생각할 때 鄭熙喆教授의 「受驗商法」을 通하여 特殊問題를 整理하면 商法준비는 可히 완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應試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民法商法을 같이 봄으로 해서 全讀하기에 辟차니 平素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行政法 : 金道稔氏의 權威書가 역시 壓卷입니다. 行政法問題集은 整理가 잘 되어 있어 많이들 보고 있는데, 問題集으로 공부한다는, 心理的 不安感과 상당히 論點이 省略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굳이 問題集을 볼 必要는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教科書라 하여도 熟達이 되어 있으면 이미 그 分量은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틈이 있을 때 「行政法例解」를 通하여 「有力한 小數說」을 정리하여 金道稔氏 教科書에 論點을 轉載하면 우수한 答案을 作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민사소송법 : 李英燮判事冊으로 할까 方順元判事冊으로 할까 右往左往하다가 결국 철저한 썬브노트를 만들었고 그후 다시 썬브노트 內容이 方判事冊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되고 썬브노트의 不安感도 作用하여 方判事冊을 基本書로 하였습니다. 受驗生을 爲하여는 方判事冊이 정리가 잘된 利點이 있으므로 이를 擇할 것이고, 訴訟承繼(訴訟物讓渡)·任意的當事者變更·訴訟上合意·當事者處分權主義等 몇 問題가 不充分하니, 이를 노트에 整理·補充하면 充分할 것입니다.

(6) 형사소송법 : 鄭榮錫教授問題集은 簡略하여 豐滿한 感을 못주기는 하나, 論點整理가 잘 되어 있고 相當한 內容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擇한 것입니다. 다만 義理上 刑訴訟의 基本理念·基本原理와 관련된 基礎의 問題에 대하여는 平素, 論文을 통하여 깊이있게 研究해 두어야 할 것이고 問題集에 빠진 문제를 몇 개는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 맺으면서

나는 요즈음 既往에 無責任하게 吐하였던 意氣와 옳은 觀念들을 行動化할 階段에 當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受驗에 臨하고 있는 諸兄들은 그 客觀的 立場의 利點을 살려 意氣를 더욱 크게 키우십시오.

그래 그 考試過政의 艱難을 어떤 의미에서는 奸智까지 動員하여 재빨리 克復하고 난 後 늠름한 姿勢로 우리 같이 對面합시다.

내가 社會生活의 始作을 願하던 形態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고마운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나의 이 장황스런 글이라 할지라도, 諸兄의 受驗生活에 一助가 된다면 이보다 더 한 보람이 없겠습니다.

※ 이 글은 1971년 10월호(통권 176호)에 게재되었던 故 김상철 발행인의 합격 기입니다.

故 김상철 발행인님의 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금 故人의 명복을 빌며, 그 분의 고귀한 삶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삼가 추모의 예를 올립니다.